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럼

감동과 신뢰

내가 누차 이야기하듯, 꼴을 얻으려면 꼴 통을 발로 차서는 안 된다.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지 말고 감동을 시켜야한다. 이는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루과이 집회 중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 다니엘 목사의 소개로 우루과이 상공회의소장인 파비안을 만났다. 그와의 만남이 너무나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상공회의소장인 파비안은 숙소 근처에 있는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우리를 초대했다. 그런데 그가 약속시간인 12시까지 도착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연락을 해왔다. 갑자기 쏟아진 비로 교통이 막히는 바람에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고 가려면 30분 정도 더 걸리겠다는 메시지였다. 나는 일행들에게 그의 말이 왔으면 그가 온 것이니 차분히 기다리라고 말했다. 그런데 채 5분이 지나지않을까? 캐주얼 남방에 재킷을 걸친 한 중년 신사가 두리번거리며 들어오더니 나에게로 다가와 인사를 하는 것이다. 알고 보니 그는 전화를 끊은 후 옷을 갈아입고 가는 것보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바꾸고 바로 약속장소로 달려온 것이다. 나는 그의 출현에 큰 인상을 받았다. ‘아, 역시 성공한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옷차림보다 약속이 귀하다는 걸 알기에 한 나라의 상공회의소장이 된 것 아닐까?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를 덥석 껴안았다.

신뢰를 얻고 싶은가? 인정받고 싶은가? 성공하고 싶은가? 두말 할 것 없이 먼저 신뢰를 구축하라. 그 기초는 약속을 생명으로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 다 마찬가지다.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키려면 약속을 생명으로 알고 지켜라.

기도는 하늘보좌를 움직인다

13년만의 방문이다. 지난 2002년 마르케스(Marquez) 목사가 주관했던 몬테비데오(Montevideo) 집회 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당시 집회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은 라구나(Eduardo Laguna)라는 사업가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신하여 10여년을 넘게 남미 집회에서 카메라 촬영으로 봉사하더니 지금은 목사가 되어 중남미 집회를 총괄하는 인물로 부상하였다. 그런데 이번 우루과이(Uruguay) 집회는 사연이 있었다. 니카라과(Nicaragua) 집회가 홍수로 취소된 후, 목사님은 서울 1성전 임성을 교단 재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연말에는 국내에 집중하시고자 했다. 그런데 이 선교사와 라구나 목사가 코스타리카(Costa Rica) 집회를 마치고

회 및 실업인 세미나를 준비했다. 현지 여러 기업들의 협찬을 끌어내고 목회자들을 연합하여 열심히 준비했으니 꼭 오셔야 한다고 연일 연락이 그치지 않았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강령이 하나님을 움직인 것이 분명했다. 우루과이에 들어갈 수조차 없을지 모른다는 계시에 목사님은 출국 전 주일 2부부터 4부까지 예배를 직접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애쓰셨고, 그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 도착할 수 있었다.

현지에 도착하여 그들이 억류에서 풀려난 과정을 들어보니 목사님의 꿈대로였다. 꿈에 우리 일행이 입국을 못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나타나 휴대폰으로 집회

에 따라 순종하고 우루과이까지 그 먼 길을 와보니 곳곳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있었던 것이다. 목사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또한 세미나에서나 집회에서나 같은 말을 반복하셨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다.”

우루과이 상공회의소장 파비안(Nestor Fabian)이 목사님이 오지 못하실 거 같아 기도했다(관련기사 4면)는 이야기나 라구나 목사를 비롯한 우루과이 교인들이 금식하고 애통하며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게 하는 실마리였다.

실업인 세미나에는 약 천여 명을 수용하는 래디슨 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상황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목회자 세미나를 마치고

고 우루과이로 돌아가자마자 검찰의 조사를 받고 구치소에 억류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라구나의 사업체에서 일하던 직원이 임금체불과 부당노동착취 등을 이유로 고발한 것이었다. 경찰에서는 출국 금지조치를 내리고 집중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출국금지가 되면 해외에 나갈 수 없으니 당장 남미 집회에 심각한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들은 억류 중에 금식하고 애통하며 부르짖는 동시에 목사님이 오셔야 한다고 읍소를 거듭했다. 그들은 목사님이 오셔야 해결을 받을 거 같은데, 목사님이 그냥 오시라고 해서 오실 분이 아님을 알기에 급히 우루과이 집

사진 및 동영상 보여주기 어떤 인사가 나타나 잘 안다며 입국을 허가해주더라고요 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억류 중 조사를 받는데 옆방에서 이상하게도 목사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 조사관 수십 명이 모여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 목사님의 집회 영상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오묘막측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항상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목사님은 원치 않으셨으나 하나님의 뜻

리에 진행되었고, 3시간이나 계속된 강의에 자리를 뜨는 사람조차 없이 경청하고 있었다. 목사님은 그동안 세미나에서 강의하셨던 모든 주제들을 종합선물세트처럼 한꺼번에 다 풀어놓으셨다. 진실로 한 사람만 변화되어도 이 나라가 변화된다는 생각에서 목사님은 세미나며, 집회며, 때 시간마다 혼신에 혼신을 다하셨다. 목사님은 실제로 말뿐 아니라 하루 10시간 기도, 집회 및 세미나에 무려 3시간의 강의 및 설교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고 계셨다.(다음 주에 계속)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천양과 울동의 천국잔치



우루과이 예수중심교회 일꾼들과 함께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실업인 세미나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호8:11~12)

내 삶의 틀을 점검해보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이 복 받기 원하셔서 삶 전반에 적용하여 복 받을 수 있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이를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더니 결국은 앗수르에 무너져 이후로 무려 2,700여년이나 국가 없는 민족으로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요. 기경(起耕)이 무엇입니까? 일어날 기(起), 경작할 경(耕), 다시 말해 일어나 갈아엎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금 긍휼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호 10:12). 왜요? 당신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바로 삶의 '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 가지 율법은 분명 복 받을 수 있는 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로 죄를 쌓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틀을 스스로 만들었던 것입니다(호8:11). 이와 같이 아무리 선한 사람일지라도 범죄 조직에 들어가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고, 날마다 노름판에 빠져 살면서는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복 받기를 원한다면 당장 회개하여 노름하는 죄악의 틀을 끊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유럽경제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여파를 미친 그리스 사태가 무엇을 말합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틀은 과감히 벗어 던지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란 겁니다. 일할 직장도 없고, 먹고 살기도

개혁하지 않으면 개혁의 대상이 된다

힘든데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니 당장에는 가혹하게 들리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니까요. 이렇듯 국가경제도 되는 틀이 있고, 안 되는 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의 틀을 갖고 계십니까? 성공하는 틀을 갖고 있습니까, 실패하는 틀을 갖고 있습니까? 부자가 되는 틀을 갖고 있습니까, 가난해지는 틀을 갖고 있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했다고 하나님께 칭찬과 상을 받을 틀입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을러서 매 맞을 틀입니까? 여러분이 하루, 1주일, 한 달, 1년 동안 사는 모습이 쌓이고 쌓여 종국에는 성공과 실패, 영생과 멸망의 갈림길을 만듭니다. 매일매일 한 두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여 자신을 비추어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과 영생이 똑같

을 수 있을까요? 10년, 20년 꾸준히 헌신봉사해온 이와 그렇지 않은 이는 그날에 주님께 받을 칭찬과 상이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지요? 소소한 것 같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백 원, 이백 원 같은 푼돈도 귀하게 쓸 줄 알아야 하고, 또 허투루 쓰지 않고 모을 줄 알아야 합니다. 주변에 알부자들을 보니 그렇게 해서 종자돈을 만들고 또 그것을 굴려 목돈을 만듭니다.

사도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자신이 일생 동안 살아온 삶의 모습, 즉 오직 예수를 향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삶의 틀을 당당히 고백했습니다.

니 다(딤후 4:7).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장차 받을 의의 면류관에 대해 확신하며 남은 고난 앞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역시 예수를 만난 이후로는 오직 기도와 노력이라는 틀에 제 자신을 단단히 매어 사람과 환경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려 몸부림쳐왔습니다. 그리고 그 틀이 지금의 저와 이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면류관을 취하는 틀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는 틀을 갖고 계십니까? 전도자는 말합니다. 세상을 살며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부족함 없이 살아왔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다 헛되다고요(전1:2). 그는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으나 미혹되어 하나님이 주신 부귀영화를 잘못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는 복된 삶, 참된 삶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사는 틀 안에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전12:13). 얼마 전 뉴스를 통해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 중에서 경제구조개혁에 관한 계획력과 실행력에 있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틀이 있고 실패하는 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삶과 영생에 있어 좋은 틀 갖추기를 계획하고 실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선순환하고 그것이 오랜 시간 쌓이고 쌓여 성공하는 삶, 빛나는 영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쪽으로 변화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변화하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화가 두렵고 또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것이 귀찮기



총회장 이초석 목사

때문입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수많은 기업들을 보십시오. 구조조정을 하고 인원감축을 하는 등 살아남기 위해 엄청나게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삼성이 어떻게 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했는지 아십니까?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로 대변되는 이진희 전 회장의 신 경영선언을 기점으로 개혁하기를 망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에 결합이 발견되었을 당시, 임원진의 생각부터 혁신을 단행하여 지금의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 발전한 것입니다. 그 아들 역시 소위 '되는' 반도체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구조로 틀을 재조정하더니 기존보다 더욱 탄탄한 기업 구조를 가지게 되었고요. 여러분, 잘되는 틀은 살려 더욱 견고하게 세우되 썩어서 흔들거리는 부분은 과감히 뽑아내고 새롭게 변화시키면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부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면, 성도가 한 명, 두 명 떠나간다면 돌아보아 잘못된 부분을 바꿔야지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 좋은 것은 저저 생기지 않습니다. 질병, 가난, 하다못

해 곰팡이와 철이 녹스는 것까지도 환영하지 않는 것들은 그냥 두어도 생기지만, 건강, 부, 학업의 성취, 영적 성장처럼 좋은 것은 거저 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 삶의 틀을 점검해보세요. 똑같은 나라에 살면서 누구는 건강하고 부요하게 잘 사는데 나는 병약하고 가난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똑같은 목사, 환경 아래 양떼들을 돌보는데 내 교구가 부흥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

붕어빵 틀에서는 붕어빵만 나온다

겨서도 안 됩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이 죄를 쌓을 수밖에 없는 제단의 틀을 가지고 있던 것처럼,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부요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틀, 내 교구가 부흥할 수 없는 틀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냉철하게 내 영적, 육적 주기를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악을 저지르는 틀, 물질이 새어나가는 틀, 건강을 해치는 식단과 생활습관의 틀을 가지고 있다면 과감하게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며, 목회가 살고, 성도가 삽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정체되고 썩어가는 틀이 있다면 건강한 틀로, 부요한 틀로, 부흥하는 틀로, 하나님 편에 서는 틀로 바꾸십시오. 일이 이미 벌어지고 나서는 늦습니다. 과정 중에 애쓰고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주님 앞에 갈 때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힘을 다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참된 씨앗

벽장 속에 꿀 항아리를 감춰놓고 혼자만 맛있게 먹는 서당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어쩌다 서당 학생들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아이들이 먹으면 죽는다.” 어느 날 선생님이 외출한 사이에 아이들이 벽장 속에 있는 꿀을 먹어 보았더니 죽기는커녕 기가 막히게 맛이 있어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께 꾸중들을 일이 무척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러자 그 중 한아가가 선생님이 가장 아끼는 벼루를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누워 있자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돌아와서는 “무슨 일로 모두들 누워 있느냐?” 라고 묻자, 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들이 장난을 치다가 선생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벼루를 깨뜨린 고로 죽으려고 벽장 속에 있는 약을 모조리 먹고 죽기를 기다리면서 누워있습니다.” 거짓말의 씨앗을 뿌린 탓에 선생님은 가장 아끼던 벼루와 꿀단지들 모두 잃고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거짓의 씨앗은 파멸과 고통의 열매를 맺고, 진실의 씨앗은 부요와 행복을 보장해 줍니다. 진실은 내 마음을 열리게 하고 나의 몸가짐을 바르게 만들어 건전한 인간을 만듭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신념을 통해서만이 목표로 했던 소망이 현실화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은 기만과 나태를 만들기 때문에 진실과 정직을 잃어버릴 때 바로 불행이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진실된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긍정의 씨앗은 내 마음속에 잠재하

고 있는 의식을 건설적으로 일으켜 세워 건강과 실천력을 만들어 줍니다. 모세가 가나안 정탐을 위해 보낸 열두 명의 정탐꾼 중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 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씨앗은 배려의 씨앗입니다. 한비자는 “그대가 부자가 되기 바란다면 그대의 이웃을 부유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먼저 이익을 주고, 내 생각대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삶을 열매로 거둘 수 있도록 말씀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마음속에 뿌리고 기도의 비료로 잘 키우면 이 땅에서는 행복의 열매를,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의 열매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요?

이관섭 장로
kwansup1029@gmail.com

단풍의 아름다움

따뜻한 햇볕이 더욱 좋은 아침이다. 똑같은 햇빛인데 여름엔 기쁘지 않고 나뭇지 계절엔 좋은 게 참으로 이상도 하다. 일본에서 본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진에 열심히 담았는데, 그런 단풍도 추위와 더위의 절묘한 조화로 만들어진 다. 동일하게 사람도 즐거움과 아픔, 기쁨과 슬픔으로 성숙된 인생이 만들어진 다. 어떤 사람은 추한 인생으로, 또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말이다. 모든 게 자신에게 달렸으니 만추의 아름다운 단풍처럼 만들어야겠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함을 추구하지만, 나 무는 폭염과 한파를 거부 않고 견디면서 이런 멋진 색을 만들어 낸다. 조개도 자신의 몸속에 들어온 모래알의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진주를 만들어 내지 않는가? 자신과 다르다 해서 거부 말고 감내해야만, 아름다운 단풍처럼, 영롱한 빛깔의 진주처럼, 더욱 성스러운 인격자로 거듭나게 되는 거다.

자연은 꾸밈이 없어 좋다. 순수해서 참 좋다. 인간은 화장, 분장, 포장을 잘한다. 자연은 그런 것이 없다. 순리대로 거부 않고 순응해가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랑의 색을 잘 표현하는데 사람과 다른 차이가 뭘까?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눅22:24~27). 내 안에 욕의 사람을 이기는 것도 오래 참음이고, 신앙의 마지막까지 경주하는 것도 오래 참아야 가능한 것인데, 이는 깊은 영성에서 나온다. 바다 물결처럼 요동하지도 않고, 사시사철 변함없이 그 자리의 단풍나무처럼, 수천 년 동안 바위처럼 그 자리에 변함없이 서 있을 수 있다는 건 가장 무서운 힘이다. 깊어지자. 더욱 깊어지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욥기 23:10).

이구원 목사
guwon3004@hanmail.net



::신앙논객::

::사랑&행복::

선으로 악을 이기라

최근 페이스북(SNS의 일종)과 몇몇 인터넷 매체에서 우리 교회와 목사님에 대한 부정적인 글들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번에 새로 꾸며진 아름다운 성전에 들어가고, 또 성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을 받고 잘 되려고 하니까 악한 마귀가 가만히 있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일단 우리 교인도 아니고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이 없다면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사이버 공격(?)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롬12:17). 특히나 페이스북 같은 SNS는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글에 대해서 우리가 댓글을 달고 그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을 다른 이용자들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 교회와 목사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항변한다 한들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열린 마음과 귀를 가진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그들에게 격

분하고 논쟁하며 우리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욕하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도 말고, 그들을 설득하려 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적은 보이는 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누군가가 그런 글들을 보고 우리에게 우리 교회와 목사님에 대해서 묻는다면, 이때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요,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종임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근본으로 하되, 자신의 믿음의 분량과 듣는 사람의 성품을 고려하여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혹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면 주의 종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온유하게 대처하기 힘들다면 당장의 불필요한 논쟁은 피하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우리의 언변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야 합니다. 자신을 욕하고 조롱하며 폄박했던 자들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롬12:21).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부부간의 거래

사람 간에 관계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나에게 서로 유익하다는 생각이 있어야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한 쪽만 계속 손해 보는 관계는 끝까지 가기 힘듭니다. 부부사이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유익하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FTA가 서로 유익할 때 성사되는 것이고, 그 유익이 계속될 때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부부사이에도 일종의 거래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50% 사랑하고 아내는 100% 순종하라고 하면, 서로가 유익한 원만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50% 사랑했으면 50% 순종만을 바랄 때 적당한 거래가 이루어져서 깨어지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심판 때 받을 상급이

더 유익이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유익을 많이 보는데 상대가 유익을 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먼저 감사와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상대를 위하여 유익을 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심사숙고하여 그렇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반대로 나는 유익을 얻지 못하나 나로 인해 상대가 유익을 많이 얻는다고 생각이 들 때에는,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줘야 한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내게도 적정선의 유익이 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세상만사가 적당한 거래가 이루어질 때 편안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형제관계, 성도들 간에도 상대방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봅시다. 이러한 마음자세는 서로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고 풍요롭고 오래가게 할 것입니다. 김고은
khjc77@hanmail.net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우루과이 상공회의소장 파비안



우루과이 상공회의소장 파비안(왼쪽)과 라구나 목사(오른쪽)와 함께



호텔 거실에 걸려있는 목사의 대형액자사진



몬테비데오 중앙광장에서 함께 손을 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히브리서 6:17)

각할 필요가 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소책자 하나를 건넸다. 그런데 그 표지에 놀랍게도 베네수엘라(Venezuela)의 전 재무장관 겸 중앙은행총재였던 에드가르(Edgar), 목사님이 데이빗(David)이라 부르는 그의 얼굴이 크게 실려 있었다. 우리는 즉시 데이빗과 목사님이 함께 찍었던 사진을 휴대폰에서 찾아 보여 주었다. 그러자 그의 표정과 자세가 급전환되기 시작하더니 여기저기 전화하고 난리가 났다. 데이빗은 현재 공직에서 물러나있지만, 남미 전역을 돌며 실업

“파비안이 너에게 돈을 대준다고 해도 너는 단호히 말해야 한다. ‘나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원한다. 함께 힘을 모아 국가를 살리는 일에 매진해보자.’ 이번 집회가 너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가 말한 것처럼 목사들이 돈이나 바란다는데, 너는 돈이 아니라 국가를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 줘야 한다. 그러면 파비안 뿐 아니라 많은 뜻있는 기업가들이 나타날 것이다. 꿈을 크게 가져라.”

식사를 마치고 함께 나와 광장을 지나는 데, 파비안이 목사님께 요청했다. “이 광장이 이 나라의 중심입니다. 여기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목사님은 크게 감동한 표정으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주었다. 광장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정말 역사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었다.

파비안이 주는 감동 역시 지극히 작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배려하는 진실이었다. 또한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아니면 별건 대낮에 광장 한가운데서 기도해달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감동적인 몬테비데오의 하루하루가 지나고 있었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상대에 대한 진실과 배려다. 무슨 큰 물질이나 비싼 선물보다도 지극히 작은 배려라도 그 진심이 느껴질 때, 더욱 깊은 인상을 준다. 우리는 우루과이(Uruguay) 몬테비데오(Montevideo)까지 독일과 아르헨티나(Argentina)를 거쳐 비행기로, 또 배로 옮겨 다니며 무려 사흘 만에야 도착할 수 있었다. 몸과 마음이 파김치가 될 만큼 지쳐 있었다. 숙소는 도심 중앙에 위치한 라디슨(Radisson) 호텔 프레지던트룸을 실업인 협의회에서 준비해놓고 있었다. 그런데 숙소로 들어간 순간, 거실 벽에 걸려있는 대형액자사진이 눈길을 끌었다. 보통 호텔 거실 벽에는 그림이나 풍경사진이 걸려있기 마련인데, 놀랍게도 목사의 사진이 크게 걸려있는 것이 아닌가? 그 사진에는 ‘핍박과 순교가 와도 예수는 증거되어야 한다’고 스페인어로 쓰여 있었다. 목사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선교사나 라구나 목사가 어리둥절할 정도였다. “이야, 모든 피로가 싹 사라지는구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했니? 아주 내 사무실을 꾸며놓았구나. 너희들이 나를 아주 감동시켰어!”

목사님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방에 들어 오셨을 때, 무엇으로 기쁘게 해드릴까 고민한 흔적이 배어있기에 그 배려가, 더구나 아주 탁월한 준비에 대견한 마음까지, 한 마디로 기쁨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로 목사님을 감동시킨 것이었다. 저녁에는 우루과이 교인들이 목사님 생신파티를 해드린다고 자신들은 1년에 한번이나 율가 말까한 고급음식점으로 준비해놓고 있었다. 부모가 온다고 저렇게 할까 하는 생각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다. 그러나 그들은 목사님을 보고, 모시고, 함께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1년의 행복을 맞바

꿀 만큼 들떠있었다. 예쁘게 만든 케이크만큼이나 그들의 사랑과 배려가 정말 아름다웠다. 우루과이의 구스타보(Gustavo) 목사 부부가 목사님의 대형브로마이드 사진을 선물했다. 그리고 이어서 젊은 청년 둘이 벤츠마크가 선명하게 찍혀있는 골프세트 하나씩을 들고 들어오더니 목사님과 필자에게 선물했다.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다. 아니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다. 드라이버나 퍼터 하나 정도가 아니라 풀세트로, 그것도 필자에게까지 준비한 것은 정말 몸 둘 바를 모르 정도였다. 이튿날 점심에는 우루과이 상공회의소장 파비안(Nestor Fabian, 44세)의 초청으로 몬테비데오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그런데 약속시간이 좀 못되어 파비안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갑자기 쏟아진 비로 교통체증이 심해져서 집에 들러 의복을 갖추고 오려면 30분 정도 더 걸리겠다는 메시지였다. 목사님은 그의 말이 왔으니 그가 온 것이라며 역시 약속이 뭔지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채 5분이나 지났을까? 노타이에 재킷을 걸친 중년신사가 레스토랑 입구에서 두리번거리더니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그였다. 30분 늦는다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어리둥절해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집에 들러 의복을 갖추고 오려했는데 너무 늦을 거 같아 바로 달려왔다는 것이다. 목사님은 이런 그의 자세에 깊이 탄복하셨다. “이야, 역시 성공자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전화로 메시지를 주었으면 그의 할 일을 다한 것인데도 약속을 지키고자 달려온 그의 생각이 멋있다. 약속을 생명으로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자세다.” 겉모습보다 내면의 약속을 중시하는 자세,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는가? 깊이 생

인 세미나를 개최하며 간증사역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모임의 수장으로 소책자 표지를 장식하고 있었던 거다. 파비안이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자신도 몸담고 있는 조직의 수장이 목사님께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 받는 관계라는 것을 알았으니 말이다.

그는 갑자기 말이 많아지며, 간증하기 시작했다. 목사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늦게 들었는데, 오시지 못할 거 같은 감이 와서 산에 가서 기도를 했단다. 우루과이의 많은 목회자들은 사업가를 키울 생각은 없고 사업가의 주머니만 쳐다보고 있어 답답하며, 생각이 작아 대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목사님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데 최우선의 사업은 교육 사업이며, 정치인보다 당신 같은 기업가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격려했다.

“나는 정말 여기 오지 않으려했습니다. 당신의 얘기를 듣고 보니 당신의 기도가 나를 여기로 오게 했군요. 내가 보니 우루과이는 지금 모든 것이 침체되어있습니다.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싱가포르(Singapore)처럼 일류국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육 사업에 눈을 돌려 인재를 키우고, 몬테비데오 항구를 남미 물류산업의 허브로 키워야 합니다. 외자(外資)뿐 아니라 민자(民資)를 적극 유치하는 겁니다. 당신의 위치면 대통령도 자주 만날 수 있을 것이니 이런 조언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나라를 살리는 건 경제인들입니다. 당신처럼 믿음이 좋은 기업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꿈을 키워간다면 반드시 이 나라가 도약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라구나 목사도 함께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봅시다.” 또한 목사님은 따로 라구나 목사에게 조용히 말씀하셨다.

내 사랑 목화꽃

당신의 얼굴은
호수위에 백조였죠
만민이 우러러 볼 수 있게
세상을 비추셨죠
어둔 밤엔 달빛처럼
골목길엔 가로등으로
나그네에게 손전등으로
어둔 방엔 호롱불로
외롭고 고달픈 심령엔
사랑의 불꽃이었죠
당신의 얼굴은
어두운 세상 망망대해
폭풍 속 길 찾아
해매는 인생 부르는 등대
그 밝은 웃음진 얼굴이었죠

朋友